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LS 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주간 ESG 뉴스 2024.11.15~2024.11.22

구분	시장 동향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주, 에너지 수요 급증 대처 위해 원전 관심 (2024.11.16, 블룸버그) 미국 뉴욕주가 원전 개발업체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남.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50년까지 원전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만큼 변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센터의 화석연료 의존으로 에너지 전환 지연 우려 부각 (2024.11.21, 로이터) 최근 글로벌 빅테크 업체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주요 원인으로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배치 속도가 상당히 느린 점.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1/3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 내에서는 신규 가스 플랜트를 추가하고 화석 연료 발전소 퇴역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정부, EV 확대 위해 전기 가격 인하 검토 (2024.11.18, 블룸버그) 파키스탄 정부가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EV 충전소 전기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관련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소형차, 이륜차, 삼륜차의 EV 충전소이며, 정부 측은 전기 가격 인하를 통해 수요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정부, 가정용 히트펌프 지원 가속화 (2024.11.21, 로이터) 영국 정부가 가정용 히트펌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배 확대할 계획이라 발표. 더해, 히트펌프 설치 제도 프로세스를 더욱 간편화 할 것이며,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남
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one, 수자원 사업 파트너십에 개방적 (2024.11.19, 로이터) 에비앙 제조사 Danone을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 집단 소송이 기각됨. 앞서 에비앙은 '탄소중립' 마케팅에 있어 용어적 모호성이 지적됨. 다만 판결을 통해, '탄소중립' 의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시되었음이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석유 업체, 바이오 연료 생산에 집중 (2024.11.20, Rystad) 엑손모빌, 토탈에너지, 셰브론 등 글로벌 대형 석유업체들이 바이오 연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총 43개까지 급증. 세부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와 수소처리식물성오일이 바이오 연료 생산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NYCERS, NZAOA에 신규 가입 (2024.11.15, ESG DIVE) 미국 연기금 NYCERS가 NZAOA(Net-Zero Asset Owner Alliance)에 새롭게 합류. 현재 NZAOA에 소속된 연기금으로는 CalPERS, AkademikerPension, AMF 등이 있음. 최근 보고에 따르면, 회원사 전체 AUM의 6%가 기후 중심 투자에 할당되고 있음. 회원사 규모 역시 전년 86명→88명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주요 연기금, 정부 산하 임팩트 펀드에 \$230M 투자 (2024.11.20, 블룸버그) 덴마크 4대 연기금(PFA, PKA, P+, Pensam)은 SDG Investment Fund II에 \$230M 규모 투자 집행. 위 펀드는 기후 변화 대처와 함께 개발도상국 생활여건 개선 솔루션에 집중하는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 덴마크투자펀드(IFU)에 따르면 해당 펀드의 예상 수익률은 연간 12~15%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CalPERS, ESG 투자 의지 재확인 (2024.11.20, P&I) 미국 연기금 CalPERS는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ESG 투자 의지를 재확인. CEO는 '내년에 기후 중심 투자, 기업 지배구조, 의료 정책을 포함한 여러 관점에 집중할 것'이라 강조. 이어 포트폴리오 내 기업에 '기후 임팩트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덧붙임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